몬스타엑스, '징글볼 투어' 에서 매력 발산

보이그룹 몬스타엑스가 샌프란시스코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몬스타엑스는 지난 1일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움(Bill Graham Civic Auditorium)에서 WILD 94.9 '징글볼' (JINGLE BALL) 샌프란시스코 공연에 출격했다.

이날 몬스타엑스는 캘빈 해리스, 파이브 세컨즈 오브 서머, 알레시아 카라, 칼리드, 노르마니, 사브리나 카펜터, 바지, 마크 이 배시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매력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발표한 신곡 'Shoot Out' (슛 아웃)의 무대를 비롯해 'DRAMARAMA' (드라마라마), '폭우' 를 연달아 부르며 압도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몬스타엑스를 보기 위해 특별히 공연장을 찾은 팬들은 강렬하고 파워풀한 무대에 뜨거운 환호성을 내지르고 공연을 즐겼다. 또한 '징글볼' 공연을 즐기기 위해 모인 다양한 음악팬들 역시 화려한 매력을 가진 몬스타엑스에 관심을 가지며 몬스타엑스의 팬을 자처하기도 했다.

앞서 몬스타엑스는 '징글볼' 투어의 첫 무대인 LA 공연에서도 2만여 명의 관객들을 열광시키며 높은 반응을 얻은 데 이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뛰어난 무대로 1만여 명의 팬들을 감동시켰다.

'징글볼' 공연은 미국 방송사 아이하트라디오(iHeartRadio)에서 매년 개최하는 연말 라디오 쇼로 글로벌 팝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몬스타엑스는 K-팝 그룹 최초로 지난달 30일부터 징글볼' (JINGLE BALL) 투어에 합류해 이달 7일까지 미국 전역 6개 도시를 방문해 미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피기스 감독, 한국어 영화 찍는다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1996)로 유명한 마이크 피기스 감독(사진)이 한국에서 한국어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4일 "피기스 감독이 쓴 시나리오의 한국어 번역 작업을 최근 마쳤다." 며 "피기스 감독은 현재 한국에 머물며 제작자들을 만나고 있다." 고 밝혔다.

피기스 감독이 준비 중인 영화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섞은 스릴러물이다. 과거 사이코패스에게 납치됐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출한 여성이 기억을 잃어버렸다가 10년 뒤 옛 기억과 다시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그렸다.

피기스 감독은 영국에서 DVD로 한국 유명 감독들의 영화를 봤고, 넷플릭스를 통해 여러 편 한국 드라마를 접하며 한국어 영화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은 평론가에 따르면 피기스 감독은 손예진이 주연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 김희애가 열연한 '밀회' 등을 인상적인 드라마로 꼽았으며 그의 공책에는 손예진, 김희애, 공효진, 김옥빈, 이솜, 조정석, 유아인, 정우성 등 한국 유명 배우 이름이 영어로 빼곡하게 적혀있다.

피기스 감독은 "100% 한국 배우들을 캐스팅할 것" 이라며 "이른 시일 내 좋은 배우들을 찾아 가급적 내년에 촬영에 들어갈 예정" 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미국에서 리메이크

2016년 방영되었던 박신양 주연의 KBS 2TV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가 미국에서 리메이크된다.

미국 매체 데드라인은 3일 한국계 배우 겸 프로듀서 대니얼 대 김(50)이 대표로 있는 제작사 3AD가 ABC스튜디오와 손잡고 한국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를 'Exhibit A' 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hibit A' 는 원작에서처럼 부패한 세력에 의해 모든 걸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앤드류 조가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시 일어서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제작사 측은 주인공 앤드류 조 역할로 아시아계 미국인을 섭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드라인은 액션이나 시트콤 분야가 아닌 장르에서 아시아계 배우가 주연을 맡은 최초의 TV드라마로 기록될 예정이라 그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대니얼 대 김이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미 한국 드라마 '굿닥터' 를 리메이크 해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굿닥터' 는 시즌2 제작을 확정했다.

한편 '동네변호사 조들호' 는 한국에서도 시즌2 방송을 앞두고 있다.

1241호 숫자퍼즐 정답

7	9	2	3	5	4	8	1	6
1	3	5	8	9	6	2	4	7
4	6	8	7	1	2	3	5	9
5	7	6	9	2	8	4	3	1
2	8	1	6	4	3	7	9	5
3	4	9	5	7	1	6	8	2
6	5	3	1	8	7	9	2	4
8	1	4	2	6	9	5	7	3
9	2	7	4	3	5	1	6	8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남편이 바람난 것이 내 팔자탓이라구요 ?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40대 여성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필자가 그 부인의 팔자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 타고난 팔자가 그래도 먹을 복은 타고난 팔자가 되는데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경쟁자들이 많은 팔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것이라는 것이 꼭 재물이나 사회적인 감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내 남자를 뜻하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씀이 "남편이 지금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불편한 안색으로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남편이 바람이 난 것은 꼭 남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인께서 타고난 팔자 자체가 어느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은 참으로 피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남편이 바람난 것이 내 팔자 탓이라구요 ?"라고 억울해 하는 표정으로 되묻는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본인이 타고난 팔자도 그렇지만 지금 부인이 지나고 있는 운(運)의 흐름도 아내로서 원만한 남편의 덕을 입을 수 없는 운의 흐름을 지나고 있으니 굳이 남편만 탓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말해 주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 아이도 있는데 남편없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해준 말은 "지금 지나고 있는 운(運)의 흐름이 아내로서 남편의 덕은 박한 흐름이 되지만 대신에 자식의 발전과 현달이 따르는 세월이 되고 올해를 지나서 내년 가을이 되면 새로운 먹을 복도 생기게 되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다. 자신이 타고난 팔자의 특징과 세월의 변화가 만들어 주는 굴곡을 이해한다면 바람난 남편만을 탓할 일도 아닌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 역학 학술원